

“스마트농업 위한 농정지원책 마련… 청년농부 육성 총력”

인터뷰 오도창 영양군수

영양군이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과 고민한 영농 투자를 통해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군 차원에서 추진 중에 있는 다양한 농업 정책들과 계획들을 알아보고 오도창 영양군수와의 면담을 통해 향후 농업 정책 방향을 들어본다. 영양군 오도창 군수 집무실에서는 군수와 영양군농촌지도자회장과 농촌기술센터 과장이 영양군 농정의 정책과 발전방안에 대한 포부를 제시하였다.

오도창 군수는 면담을 통해서 “농업 행정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문을 연후 영양군의 농정 방침 및 추진하고 있는 농업 정책, 향후 계획 등을 전했다.



-영양군의 농업 현황에 대해 소개 부탁 드린다.

“영양군은 예로부터 고추, 담배 농사를 주로 했다. 다만 근래에는 과수, 배추, 천궁 등 품목이 다양해지고 있다. 고령 농가가 많다 보니 고추 농사와 같은 대규모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작목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다. 반면 기술 집약과 시설 활용을 하는 스마트 농업에 점차 관심을 가지는 지역 젊은 농기들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군에서도 기술 집약적 농업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경영실습 임대농장을 건립 운영 중이며 청년농부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민선7기 군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농업 정책이 궁금하다.

“급변하는 농업환경 트렌드를 반영해 농산물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농정지원정책을 마련, 튼튼한 농업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료 자부담을 20%에서 10%로 낮추는 한편 농업 보조금 지원 비율을 70%까지 확대했다. 아울러 토종곡물가공시설 설치, 과실전문생산단지 조성, 경영실습임대농장 확대,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 방제용 드론 전문가 육성 등을 통해 미래 농업의 기틀을 마련할 것이다.”

-농업현장 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7년부터 전국 최초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계



오도창 군수는 농촌지도자회장과 농촌기술센터 과장 등과 함께 향후 영양군 농정의 정책과 발전 방안에 대한 포부를 제시하였다. (왼쪽부터) 인력육성담당 안 흥, 오도창군수, 권재현농촌지도자회장, 이윤칠농촌지도과장

기술 집약적 농업 집중 지원

농작업 인력 수급 대응책 마련

“지속 가능한 농업 이뤄낼 것”

절근로자 사업이 전면 취소됐으나, 올해는 노력 끝에 우즈베키스탄 계절근로자를 어렵게 유치해 농가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또한 영양 빛깔찬 일자리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사)대한노인회 산하 취업지원센터 4개 소(경북·경남·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 취업지원센터)와 일자리 창출, 구인난해소, 농작업 대체인력 수급 지원 등 현안사업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안정적으로 농작업 인력을 수급하고 있다. 또한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 임대율을 높이고 민선 7기 농정분야 핵심 공약인 농작업 대행반 운영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 및 부녀자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한다.”

유지하기 위해 군은 국·도비를 확보하고, FTA 대비와 고추비가림 재배시설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14억원(국고보조 100%)을 투입해 과실생산 전문단지 기반조성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와 함께 자체 군비 사업으로 10억을 투입해 과수명품화에 힘쓰고 있다. 올해 국비 25억원 들여 영양읍 현리에 농산물가공지원센터를 건립해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특화작물 육성 정책 중 ‘천궁 재배단지 조성 지원사업’도 눈에 띈다.

“영양군의 천궁은 전국 생산량의 약 70% 정도를 생산하고 있다. 2020년 조사 결과 78ha(166농가)에서 890톤 가량을 생산해 전국적으로 약재, 의약품, 한방화장품 등 다방면으로 널리 유통하고 있다. 영양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해마다 천궁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천궁 재배방법 및 병충해 방제법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농업 축산과에서는 올해 자체 예산 2억 6,000만원을 투입해 ‘천궁재배단지조성 지원사업’을 추진해 관내 천궁 재배농가에 전용 농약, 기능성 약재, 점액관수시설, 종자대 등을 지원했다.”

-군민들에게 전하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신지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을 발굴, 주진나가 군의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이뤄 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풍요로운 영양을 만들겠습니다”

/영양(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metroseoul.co.kr

광주시, 대한민국 대표 건강도시 자리매김

광산구 ‘대한민국 건강도시’ 우수상 34개 ‘온 동네 함께 걷는 코스’ 개발

걷기 운동 실천을 통한 시민 면역력 증진을 추진해 온 광주 광산구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건강도시로 인정받게 됐다.

광산구는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KHCP)에서 주최한 ‘2021년 대한민국 건강도시상’ 공모전에서 우수상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건강도시상’은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정회원 102개 도시를 대상으로 두 가지 분야(공동정책, 일반정책) 모범사례를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광산구는 ‘온(溫)동네가 함께 행복으로(路) 건강광산’ 사업으로 일반정책 분야에 응모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광산구는 걷기 운동을 통해 누구나 쉽



김삼호 광산구청장과 걷기지도자들이 걷기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기보, 부산 남부보건소에 건강물품 전달

헌신하는 의료진·자원봉사자 응원

기술보증기금이 노사 공동으로 본사가 위치한 부산시의 남구보건소에 500만원 상당의 건강 물품을 전달했다.

기보는 코로나19 장기화와 무더위 속에서 지역 주민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보건인력을 응원하기 위해 이같은 자리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정윤모 기보 이사장은 “무더위 속에서도 코로나19 방역의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남구보건소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채수은 기보 노조위원장은 “기보는 앞으로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역사회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나눔 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술보증기금 노사는 부산시 남구보건소 코로나19 방역 보건인력에 500만원 상당의 건강물품 전달했다.

한편, 기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기보 임직원의 급여 반납금, 기관 경비 절감 분, 노동조합 사회공헌활동비 등을 재원으로 코로나19 특별위기지역 긴급구호품 전달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승호 기자 bada@

경북도 4일 ‘세계유산축전, 안동’ 개막

경상북도는 오는 4일부터 26일까지 23일 간 하회마을을 비롯, 도산·병산서원 등 안동의 세계유산 현장에서 ‘2021 세계유산축전, 안동’이 펼쳐진다.

세계유산 축전은 우리나라의 세계유

산 등재를 기념하고, 세계유산이 지난 가치와 의미를 향유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개최하고 있으며, 경북을 비롯해 세계유산 보유 지자체에서 매년 열리고 있다. 올해 축전행사는 8월 백제, 9월

안동, 10월 수원화성과 제주 순서로 진행된다.

매인 공연으로는 추석연휴 5일간 ‘Lotus Love’ 무용극을 러시아 마린스키 발레단과 협연으로 선보이며, 하회마을 하회마을 빼놓을 수 없는 대표적 전통놀이인 ‘선유줄불놀이’가 진행된다.

/경북=김홍기 기자 gki2136@

영암군 영암산 샤인머스켓 출하

영암군의 지역특화작물 중 하나인 영암산 샤인머스켓 포도가 본격 출하에 들어갔다.

군에 따르면 영암산 포도는 영암군 금정면 등 26농가가 비닐하우스를 재배하여 9월 초부터 추석 전까지 수확된다.

하우스에서 수확된 포도는 도로변 직판장 및 직거래에서 8.31일 기준 2kg당 1박스에 3만원 선에 거래되고 있어 농가의 두둑한 소득원이 되고 있다.

영암산 포도의 인기 비결은 일조량이 풍부하고 토지가 비옥한 환경의 영향으로 알이 탱글탱글하고 당도도 높고, 특유의 향미가 강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 덕에 해마다 많은 소비자가 많이 찾고 있다.

/영암(전남)=김희선 기자 khs161700@